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

일체 중생의 구제라는 것발을 앞세운 대승불교의 첫 출발은 '반야경'의 성립과 함께 시작됐다. 이 '반야경'의 핵심이 바로 <반야심경>.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중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법하신 내용의 골자를 260자로 압축한 경전이다.

짧지만 긴 경전 '반야심경'

오등선원에서 1년간 열린 소참법문 강설 정리 무구자 도인 주해 근간 삼아 폭넓은 해설 '신선'

리를 보지 못하고, 따라가도 그 뒤를 보지못한다'는 도가의 소식, '우러러 봄에 더욱 높고, 뵈어 봄에 너무 견고하며, 멀리 앞에 있음을 보았는데 현연히 뒤에 있다'는 유가의 소식을 함께 전함으로써 '마하'라는 문자의 의미를 통해 곧바로 대도의 한가운데로 뛰어들게 한다.

소참법문으로 반야심경을 1년동안 강설했는데, 수좌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찾아왔다"며 "법문 내용중 이색적이고 수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무구자도인의 원고를 위주로 해서 책으로 펴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독하고 지혜의 눈을 뿜으면 한다"고 밝혔다.

참선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1986년 공주 학림사를 세우고 오등시민선원을 개원, 감로의 문을 활짝 열어 온한대원 스님은 1942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다. 스님은 16세 되던 해에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20세에 동산 스님에게 구족계를 수지하였다.

1966년 남장사에서 혼해 스님을 시봉하며 선어록 금강경 강의를 듣고 율맹정진했다. 스님은 혼해 스님에게 '크게 한 소리에 하늘과 땅이 무너지고 /



반야심경 한암대원 선사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1만5000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었네 / 거연히 한 걸음 나아가 머리를 돌이켜보니 / 산은 드러나고 시냇물은 곡 밖으로 흐를일세."라는 계승을 지어 바쳤다.

그 뒤 상원사 동화사 해인사 송광사 불국사 법주사 지리산 칠불암 통도사 창계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을 받았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나옹 스님이 일러준 깨달음의 10단계



나옹 스님 영정(부분)

'그저 날마다 스물네 시간 행주좌와와 4위의(四威儀) 속에서 오직 본래 참구하던 화두만을 들어야 한다. 끊이지 않고 들며 쉬지 않고 의심하면 고요하거나 시끄러운 가운데 들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고,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이 난다. 또 자나깨나 화두가 앞에 나타나 있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고 일어나려 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무량 헤오 스님(부산 묘관음사 선원장)이 편역한 <나옹선사어록>의 주요내용은 화두참구하라는 것이다. 또 스님은 깨달음을 이루는 10단계를 말하는 '공부10절목(工夫十節目)'을 지어 후학을 지도했다.

'공부10절목'의 핵심은 소리와 대상을 초월하는 경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 깨달음에 기초해서 공(功)을 들이는 것이다. 공이 완전히 익어서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을 때도 삼매가 유지되고, 잠자고 깨어있을 때가 한결 같은 경지가 될 때,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이 오고, 이 때 자신의 주인공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스님은 다음 단계인 육체가 사라질 때 자신의 주인공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할 만큼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나옹선사어록>은 본래 고려말 3대 선지식중 한명이었던 나옹 스님의 제자들이 스승의 말씀과 법어, 서신, 계승, 깨달음의 시, 교화적인 시 등을 수집하고 바로잡아 어록과 가속 두권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은 나옹 스님의 행장, 어록, 계승을 으뜸 사람들이 읽기 쉽게 한글로 표현되어 있으며 원문에 함께 실어 이해가 미진한 부분에 도움을 준다.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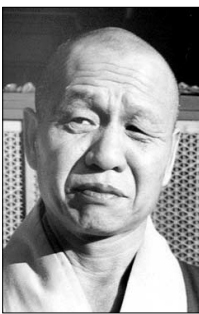
나옹선사어록 무량 헤오 지음 도서출판 명상 3만원

yosiamun.com 추천도서

-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초기불전연구원, 각목 스님, 1만원
 - 불교의 이해와 신행 조계출판사, 대한불교조계종교무원, 9000원
 - 생활속의 금강경 효린, 우봉 스님, 7000원
 - 인도불교사, 2 시공사, 에디션 라모트, 6만5000원
 - 달라이라마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 하얀연꽃, 맨진가초, 1만2800원
- 도서주문 (02)2004-8220

오현 스님의 선사 집중 조명

계간 '창작 21' 신년호



임연태 기자

계간 종합문예지 <창작 21>(발행인 문창길)이 2006년 신년호에서 오현 스님(신홍사 회주·사자의 시세계를 집중 조명했다.

21세기 시인연구 코너를 통해 '견춘3제' 등 신작시 9편과 오현 스님의 시세계를 분석한 평론 2편을 실었다. 문학평론가 조미숙(건국대 강사)씨는 '오현 스님의 특색'을 통해 득도와 수양이 어떻게 시로 드러나는가를 탐구했다.

2002년의 <만약가타집>에 실린 시조를 중심으로 오현 스님의 선 수행이 선사라는 열매로 맺혀지는 과정을 파악한 것. 또 문학평론가 임근복(성신여대 강사)씨는 '우주적 부처를 발견하는 미의 마술사'란 제목의 평론을 통해 오현 스님의 첫 번째 시집 <심우도>(1979년)와 두 번째 시집 <산에 사는 날에>(2001년), 세 번째 시집 <절간 이야기>(2003년)를 포괄적으로 조명했다.

임연태 기자

세살만 먹어도 아는 '참된 삶의 지혜'



어든은 어려워도 세살은 쉬운 참살이 차차서 지음 우리출판사 1만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참뜻은 무엇일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용한 것인가?

불교적 삶의 실현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실현의 길은 무엇인가?

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화두가 많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류의 대 스승이며 사생의 대자부이신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불자들에게만큼은 삶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8만4000법문이라는 상상적인 숫자가 말해주듯 너무도 방대한 가르침은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에 쉽게 다가서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직도 많은 불자들은 경전의 가르침을 그야말로 우리 중생들과는 거리가 먼 '부처님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뿐 그것이 우리의 바른 삶을 지탱시켜주고 윤택하게 해주는 '참된 삶'의 방법론임을 모르고 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뜻은 무엇일까? 바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방법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책 <어든은 어려워도 세살은 쉬운 참살이>는 불교의 가르침이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

한 아주 쉬운 지침서라는 데에서 출발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쳤던 많은 이야기들을 저자는 현재의 언어로 들려주고 있다.

특히 불교의 특정 교리 또는 특정 사상의 탄생 배경과 의미를 규명하고 있으며, 이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제 1장 '부처님, 이 땅에 오시다' 편을 맨 앞에 두었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비롯되는 불교 발달사를 시작으로, 불교의 핵심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 2장 '없음과 비움의 철학적 사색'에서는 불교의 근본사상인 무아, 윤회, 공 사상의 변천

사를 살피고 있다.

제 3장 '계승 이야기'에서는 승가를 유지하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계승의 근본정신과 그 발달사를 다루었다.

제 4장 '수행과 삶의 이야기'에서는 이상적인 불교적 삶의 방법론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본다.

제5장 '부처님, 여성을 보다'에서는 그 어떤 페미니스트보다 앞서 있었던 부처님의 여성관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도 부처님의 경제관 혹은 사회관을 엿볼 수 있는 '수행과 삶의 이야기'는 수행과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 핵심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보다 나만의 깨달음보다는 사회적 실천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위해 수많은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셀 수 없이 많은 경전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차차서 지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들의 생활에서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일단의 고민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깨달음에 이르는 길

초발심에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수행법의 결정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완역출간이며 한국 불교에 기념비적인 경론!!

달라이 라마가 2005년 12월 <한국인을 위한 법회>에서 추천했던 바로 그 책!!

승속을 불문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환희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

저자는 이 책에서 법과 영적 스승에 귀의함으로써 누구에게나 필연적인 죽음, 인과법칙과 수많은 고통을 뛰어 넘어 사랑과 열정을 바탕으로 둔 이타의 보리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더 나아가 궁극적 진리인 자기도 없고 남도 없는 공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결국 모든 인간에게 소중하게 부여된 궁극적 깨달음을 향한 자유의 길을 제시해준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대중적인 수행의 가르침이 주된 내용이며 좀 더 높은 차원의 티베트 불교의 독특한 수행단계도 소개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진리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수행은 인위적으로 총가파가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이천 년 동안 붓다와 그 제자들이 스스로 실천해 온 방식이기도 하다.

수행자들은 그들의 삶을 뒤집어쓰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을 때 압도당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다. 그럼으로써 수백 번, 수천 번 언드려 절을 하며 자기들의 영혼을 정화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제 당신도 세계 불교를 이끌고 있는 티베트 불교의 정수를 만나게 됩니다!

지영사 Tel. (02) 747-6333

교보문고 불교부분 1위



총가파 지음 / 청정 울림 신국판 변형, 양장본 / 1008쪽 / 값 43,000원

산중일지

늦각이 수행자의 25년간의 진솔한 수행담!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극찬했던 바로 그 책!



저자는 우리 불교사의 중요한 시기에 수행했던 원로였다. 이 책은 수행자의 사표를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책이며 당대 선지식인들의 면모를 후대인들에 의해 윤색되지 않은 생생한 일화로 만날 수 있다. 활로를 모색해가는 한 수좌의 평범한 일상과 철저하게 은둔속에 갇힌 수행자의 길과 그 길속에서 수없이 만나는 의문의 불음들에 대해 너무도 진솔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현직 지음 / 신국판 변형 / 값 10,000원

동국대 역경원장 월운 스님이 옮기고 해설한

부모은중경



부모는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자식의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베푸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다. 있고서는 부모의 은혜가 왜 소중인지, 왜 다 갚을 수 없는지 가슴 깊이 알게 해주는 책이다.

신국판 변형, 양장본 / 값 8,000원